

# “선생님 표정이 안보여요”... 걱정되는 영유아 인지 발달

코로나19가 바뀌놓은 아이들의 삶

표정을 가려버린 마스크... 애착 형성·감정교육 장애  
수시휴원에 교육과정 지속성 차질... 적응 제대로 못해

코로나19는 우리 가정과 아이들의 삶을 크게 바꿔놓았다. 코로나19가 바뀌놓은 어린이의 가장 큰 일상의 변화는 마스크 착용이다. 현재 열

굴을 가린 상태인 마스크를 낀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교사의 표정, 몸짓, 언어 등 모든 것이 영유아들에게는 중요한 교육요소지만 교사들이 하루 종일 마스크를 끼고 생활하게 됨으로써 영유아들은 상대방의 감정과 기분을 알고 그에 따라 상호작용하며 사회성을 길러나가는 데 커다란 문제가 생기고 있다.

어린 영유아가 부모의 품을 떠나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면서 교사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있는 마스크를 착용한 교사의 모습은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면서 마스크는 영유아들의 애착 형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전 빛사랑 어린이집 허기 원장(49·여·광주시 동구)은 “현재 유아들의 마스

크 사용은 필요에 따라 권고하며, 24개월 미만의 영아들은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은 질병 관리본부의 의견이 있었으나 모든 부모들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영유아 모두에게 마스크를 꼭 씌우고 있고 이는 사회적 불신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영유아에게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과도한 불안감을 심어주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에 “앞으로 마스크를 끼고 생활해야 하는 시간들이 긴 시간 지속된다면 교사들의 표정 및 입모양이 보일 수 있는 투명 마스크 등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관련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영유아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감기 및 폐렴 등 증상과 유사하여 어린이집에서 등원 중단 조치가 내려지면 맞벌이 부모들의 경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맞벌이 부모의 돌봄 휴가에 대한 강력한 추가 기준을

이 만들어져야 하며 잦은 휴원 및 다양한 교육 활동 기회 제한으로 영유아기 교육적 경험의 결손을 가장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유아기는 정서적인 안정 및 안정적인 돌봄의 중요성이 더 큰 시기이므로 가정에서는 부모의 안정적인 양육방식을 점검해보고 어린이집에서는 좀 더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여 정서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내는 현명함을 길러주고 건강한 영유아기를 잘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전과 지금 어린이집 환경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어린이집은 1년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영유아의 흥미와 발달을 고려하며 운영이 이루어졌으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운영 방침이 수시로 변경(휴원 및 긴급 보육 운영 등) 되면서 교육과정의 지속성에 문제가 생겼다. 영유아들의 교육적, 발달적 적응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을 떠나 어린이집에서 많은 시간 동안 생활하게 되는 영유아들은 단계별 적응 과정을 통해 어린이집 생활에 대한 적응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잦은 휴원으로 인해 정상적인 등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



광주시 남구 진월동 유정유치원에서 인지능력 발달을 위해 촉감놀이를 하고있는 아이들. 코로나19 감염의 두려움으로 마스크를 쓴 채 놀이를 진행하고 있다.

다. 영유아기는 맘껏 뛰어놀며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해져 더욱 불안감이 더 커지며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영유아들에게 세상이 안전한 곳이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형성해 나가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문재민 학생기자



광주시 서구 한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치매 예방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 비대면 고독을 달래주는 천사 반려동물 인구 1500만명 돌파

코로나 시대의 반려동물들

코로나 19로 모두가 고통받는 사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을 돌파했다. 반려동물(Pet)과 가족(Family)의 합성어 ‘펫팜족’이 신조어로 등장했을 정도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심각해지고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사람들과 반려동물이 함께 보내는 시간 또한 크게 증가했다. 한때 집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재택근무를 하는 사진이나 반려동물에게 산책을 나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영상이 SNS에서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다수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늘어난 실내 활동 시간을 반려동물과 함께 보내면서, 고독과 외로움을 달래고 마음의 안정을 얻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반려동물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있는 이고은 프리랜서는, 행동이 제한되고 답답한 상황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해 무료하거나 외롭지 않았으며 고마움을 표했다. 또한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반려견이라며 반려동물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경제활동도 하고 있다는 심정을 전했다.

실제 코로나19 초반, 이고은 프리랜서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이고은씨와 반려견들.

의 반려견 산타와 동동이는 산책을 하지 못해 스트레스로 인한 배변실수와 같은 불안증세를 보였다. 조금 잠잠해질 즈음부터 사람이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에 조금씩 산책을 나갔으며, 그마저도 땅에 사람의 타액과 같은 이물질이 묻었을까 우려되어 유모차를 이용해 땅을 밟지 않는 산책을 시키거나 발바닥을 자주 닦아주었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고은 프리랜서는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 코로나

를 극복하며 살아갈 것이기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반려동물의 마스크와 같은 방역 제품과 복지가 개발되고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반려동물 인구와 실내 활동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우리는 반려동물과 더불어 웃으며 살아가기 위해 동물 보호·복지제도 개선과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정은지 학생기자

## 저항력 낮은 노인들 하루하루 살얼음판

노인요양시설도 비상

요양원, 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등 노인시설들은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달라졌을까.

많은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기에 감염의 위험이 상존함은 물론 상당수 노인들이 기저질환을 갖고 있어 취약성이 크게 우려되는 곳이 바로 이들 노인시설이다. 광주 서구의 B주간보호센터를 취재했다.

노인복지시설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취미생활이나 프로그램 참여로 이용시설에 포함되는 반면, 주간보호센터는 노인이 센터를 방문하거나 차량 이동으로 방문하여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은 뒤 자택으로 귀가한다. 낮 시간 동안만 단기 보호를 해드리며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및 신체기능 향상을 위해 여러 전문 프로

그램을 진행하면서 치매 예방 서비스를 하고 있다.

주간보호센터 센터장 L모씨(53·여)는 코로나19 이후 1분기에 노인 수가 확 줄어든다고 2분기까지도 여전히 줄어든 상태라며, 그러다 보니 예산 안에서도 적자가 발생하고 운영 면에서도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한다. 어르신들을 미용실이나, 병원을 방문해야 할때도 사람들 없는 한산한 시간대를 체크해가며 예약을 하고 보호자 동행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어르신들 또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호흡곤란과 수업 전에도 불편함을 겪고 있다.

또한 차량으로 어르신 데리러 갈 때 체온계, 손 소독제를 구비하며 차량 탑승 전에 열체크를 하며, 37도 이상 미열이 발생할 경우는 바로 귀가 조치 동시에 보호자

에게 연락, 동선확보를 거친다고 한다. 간혹 발열이 없어도 출타하거나 수도권 방문한 분들을 대상으로 경과를 지켜보고 추후에 방문이 가능하다고 한다. 센터 도착 후 또 한번의 발열 체크와 함께 정부 지침에 따라 오후 한번 가기 전에 한번 등수시로 신경 쓰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초반과 현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모두가 코로나의 심각성을 알고 마스크를 자주 착용하다 보니 마스크 쓰는 것이 일상화되었다고 한다. 센터 내에서도 식사와 양치질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벗지 않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요시 한다.

각종 노인활동 시간과 식사 시간이 지나면 마스크를 하루에 수회 교체해야 하는데 마스크 구입예산이 부족했다고 한다. 그밖에도 여러 방역물품 구입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용유영 학생기자



언론이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는 예비언론인을 길러냅니다.